

평택시의회 평택 사회복지 정책 연구회

평택시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조례 검토 실시

평택시의회 평택 사회복지 정책 연구회는 지난 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성 대표의원, 권영화 의원, 유영삼 의원, 이병배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들 비롯해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의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김은숙 간사로부터 2차 간담회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조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의 전문가도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현행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기존 조례의 개정해야 할 부분, 새로운 영역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조례의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이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 지원 조례, 청소년들의 놀(즐길) 권리 및 여가 활용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들도 있었다.

또한 사실상 각 조례에는 위원회

가 별도로 구성되도록 돼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례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기성 대표의원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다음 회의 시에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 분야의 조례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평택해경, 어린이집 원아 초청 견학 실시

해양경찰 업무 소개...해양사건 신고 접수 체험도

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6월 2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경기도 안성시 푸른나무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업무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평택해경서 강당에서 해경 홍보 동영상 시청 후 해상치안상황실을 견학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해양사건 신고 접수를 해보기도 했다.<사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푸른나무 어린이집은 지체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돌봄을 받는 교육 시설이다.

어린이들을 인솔한 유민주 선생님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견학을 가기가 쉽지 않은데 평택해경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해양경찰을 소개해줘서 고맙웠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장애 어린이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미라 기자 mamuik@hanmail.net

공재광 시장 기업투자유치 광폭 행보

서울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신성장 경제신도시 실현을 위해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온데 이어 오는 6월 21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12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반도체라인 가동(6월)을 앞두고 있고 LG전자도 기존 산업단지를 30만평 규모로 확장 신수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협력사 등 관련기업의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배후단지, 드림테크산업단지, 브레인시티개발사업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투자유치를 위해 삼성·LG전자와 연관된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바이오신약 등 신수종사업과 평택항을 배후로한 물류기업 등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고 찾아가는 투자상담,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등 전략적인 세일즈를 펼쳐왔다.

특히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국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프리몬트에서 유진초저운(주) 등 3개기업과 총 7억3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외 국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한 결과 ㈜셀맥인터네셔널, ㈜다코넷 등 32개 업체 2조317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투자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민선6기 출범이후 61회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공장증설, 도로확포장 등 129건의 기업에로사항을 해결했으며, 과감한 기업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기 공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 시민 아이디어 공모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6월 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 시민 아이디어는 "평택시민들이 너도나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평택시 여건 및 환경에 부합하고 평택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면 된다"고 말했다.

모집 방법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7월 12일까지 평택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접수 및 시 홈페이지(쓰레기와의 전쟁) 배너를 통해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031-8024-3709), 이메일(min6689@pyeongteak.go.kr)로도 접수 가능하다. 공모에 선정된 3명에게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시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평택신문과 함께할 경력직 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 취재부 신입 및 경력기자
- 지원자격 : 학력 무관,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 : 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 급여 : 연봉 2400만원
- 복리후생 : 4대보험, 식대지원, 경조사비지원
- 문의사항 : 평택신문 경영지원실 031-663-1100
- 이메일접수 : iptnews@naver.com